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

가끔 문학 강연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글쓰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더러는 인생에 대해서. 한결같이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이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은 슬럼프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 가운데 사랑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었고, 슬럼프 극복에 대해서도 무언가 묘안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 얼버무린다. 다만 슬럼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을 내놓기도 한다. 슬럼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슬럼프에 대하여

일종의 고난이고 고통이겠다. 슬럼프가 뭐 별것인가. 내내 잘 굴러가다가 주춤춤하는 것이 슬럼프다. 그러다가 삼해지면 가속도가 떨어져 이에 제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막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다. 이러한 정황을 어찌하면 중단 말인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은 그래서 안 되는 일이다.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 어찌해야 좋은가? 이쯤에서 나는 지난날 나의 경험을 불러내야만 한다. 그러한 때 나는 어찌했는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젊은이들도 나에게 묻는 것이리라.

그러하다. 나에게도 나름 몇 차례 슬럼프가 있었다. 인생의 슬럼프가 있었고 시인으로서 시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슬럼프가 있었다. 처음엔 무척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

우선은 기다려야 하고 생각을 좀 더 느슨하게 가져야 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그러

니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항목이 기다림이고 느긋함이다. 시간의 은택을 입어야 한다. 시간이란 참으로 은혜로운 존재이다. 많은 상처를 치유해 주고 새로운 능력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사막에 사는 전갈의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갈은 사막의 맹독성 절지동물이다. 생김새도 흉측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침이 있다. 이 독침으로 먹잇감을 공격하고 나서 그 대상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식량으로 삼는다고 한다. 때로는 그 먹잇감으로 제법 큰 동물도 걸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천하무적 같은 전갈도 잡아먹히는 때가 있다. 바로 독침으로 먹잇감을 쏘았을 때이다. 몸에서 독이 빠져나간 그 순간을 노려 사막여우 같은 짐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땀을 흘리며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갈은 일단 상대방을 쏘고 난 다음에는 재빨리 모래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독이 새로 생겼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기다림이고 물러섬이고 인내이다. 시간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롭게 생기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록 작은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도 이러한 전갈에게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지혜요 현명함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슬럼프에 빠졌는가? 그렇다면 일단은 참을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림 줄 알아야 한다.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나름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 터닝포인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할 때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 나 자신만 해도 여러 차례 슬럼프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 인생의 위기. 시인의 슬럼프. 그 슬럼프와 위기가 그 이후의 나의 인생과 시를 새롭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마운 일이고 다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공한다. 기다림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른다. 그러니 나날이 고달프고 답답하고 지치는 것이다. 목전의 유익이나 편리보다는 보다 먼 날의 성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인생은 의외로 길고 지루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기도 하다.

종교칼럼

꽃병의 꽃은 봄날에도 시든다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꽃을 좋아하는 지인이 꽃을 선물했다. 매일 물을 갈고 물때를 닦고 시든 이파리를 떼어 내도 일주일 이 지나니 시들시들해졌다. 마침 신도 한 분이 차실에 들어왔다가 시든 꽃을 보았다. "스님, 법당에 꽃이 올라왔는데요. 새 꽃으로 바꿀까요?" 나는 그냥 두라 하였다.

시든 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둔 것은 선물한 이의 마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특별히 꽃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신도분이 가고 나서 시든 꽃을 다시 보았다. 시들어 하나 둘 꽃잎을 떨구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저기 말라서 쪼그라지고 색까지 바랬지만 여전히 웃는 꽃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들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버려지는 것이 꽃의 삶이다.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다.

시들시들한 꽃다발을 자세히 보면, 한 때나마 활짝 피어서 자태를 마음껏 뽐내던 꽃들도 있지만, 풍우리 맺힌 채로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다. 만개한 꽃보다 훨씬 작기에 시들시들한 꽃잎 옆에 혹은 가려진 아래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다닥다닥 붙어서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듯 결연한 각오를 뽐내고 있다. 시들어 처연하게 꽃잎 떨구는 영세적인 미학과는 다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시든 꽃은 꽃으로서의 효능을 상실했기에 단지 쓰레기에 불과하다. 결국 시든 꽃의 운명은 쓰레기통에서 마감한다. 음식물도 아닌데 음식을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인간이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꽃은 꽃이 아니다. 꽃이라 불리는 순간, 그것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허리가 썩듯 잘려 꽃병에 꽂혀서 며칠을 버티다가 시들해지면 버려진다. 꽃이라 불려지는 그것은 인간에게 단지 욕망을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이다.

꽃은 시든다 하고 사람은 죽는다 한다. 또 어떤 것은 썩는다고 하고 어떤 것은 낯는다고 한다. 인간이 불인 말과 그 뉘앙스는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 모두 변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사람이 시들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사람 역시 시들기 매한가지이다. 사람도 시들해지면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하다가 결국 요양 시설에 버려진다. 인간 역시 한 떨기 꽃보다 나을 것 없는 존재이건만, 인간은 자신이 꽃들의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통찰과 그에 따른 꽃에 대한 연민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꽃을 대하듯 그렇게 인간을 대하는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신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다. 신이야말로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의 산물이다. 일찍이 베이컨은 인간의 이런 편협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종족의 우상'이라 칭하였다.

꽃병의 꽃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도 시들시들하다가 죽어 버린다. 실로 인간적인 죽음이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

이면 휘영청 밝은 달이 뜬다. 여름이면 서늘한 바람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천지를 덮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봄날에 활짝 피는 꽃과 가을 찬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얽매어서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방 안으로 가져온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한다면, 그것은 꽃병의 꽃 같은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욕망의 산물이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시든 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배제된 욕망이다.

'무문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만약 머리에 담아 둔 쇠데는 일 없다면(若無縛髮掛心頭)/ 사람 사는 일 언제나 좋은 것(便是人間散花筍)" 인간이 그토록 갈구하는 영원한 행복, 혹은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꽃병의 꽃은 2주가 지나도 그럭저럭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꽃병에 수감된 처지가 안스러워 쟁쟁한 꽃도 있지만, 허리를 썩듯 잘려도 제 스스로 꽃꽂이를 잘 버티고 있다. 세상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시든 꽃이나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될 것이다. 꽃이 시들 듯 사람도 시든다.

기고

'십시일반 운동'을 제안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우리가 널리 쓰는 말 중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선방에서 안거할 때 자신이 먹을 쌀은 지고 가서 끼니마다 먹을 만큼 내놓았다고 합니다. 만일 객승이 오면 모두 자신의 밥을 한 숟가락씩 털어서 주었는데, 이것이 십시일반의 유래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십시일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 및 공공 기관이나 탄탄한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만 영세업자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민간 기업 직원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0이라는 매출 전표를 SNS에 올리는 식당 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평소와 비해 다섯 배 이상 힘든 과로에 시달리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장관, 공공 기관장, 국회의원들의 한 달 급여를 반납하고, 이하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의 IMF라 불리는 힘든 시기를 거칠 때 차관금 이상 공무원들이 1년간 급여의 월 10%씩을 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모두가 3월 급여를 기부하는 숭선수범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본보기가 있다면 국민들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십시일반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시일반 운동은 3월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형편에 따라 3월 급여 일부를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부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는 소액 성금 모금 운동을 넘어 온 좋게 시스템 안에 있게 된 분들이 급여의 상당부분을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자는

운동입니다. 대기업과 연예인들의 통 큰 기부, 임대료를 낮춰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건물주들이 증가하여 희망이 보입니다. 정치권은 늘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쁘지만 대제양 앞에서 빛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코로나 19는 무중상 감염이라는 경혐해보지 못한 속성을 가진 낯선 바이러스임을 전문가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부 대응의 잘못은 사태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버틸 힘을 갖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민간 운동이 탄력을 받도록 국가에서는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마다 주저 없이 선봉에 섰던 광주시민은 이번 '코로나 19' 공격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뚝뚝 뚫쳐 맞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빛고을의 나눔 정신이 대한민국을 환히 비추는 햇불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십시일반 운동에도 광주의 공공 단체와 기업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社說

한빛원전 완벽 보수·점검 후 재가동해야

한빛원전 3·4호기가 멈춰선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재가동은커녕 제대로 된 보수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가동을 멈추고 계획 예방정비를 시작한 이래 만 2년이 되어 가는데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18일 가동 중단 후 여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호기는 지난달 25일 정비를 마쳤으나 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일부 누설(漏洩)이 확인돼 재가동이 5월로 늦춰졌다. 한빛 4호기는 아예 정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동을 멈춘 때만해도 57개였던 격납건물 공극(구멍)이 1년 뒤에는 140개로 3배가량 늘었다.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문제의 격납건물을 설계·시공한 당사자들이 하자를 진단하고 보강한다는 자체를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한수원 측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지역민은 수년 동안 원전의 공공 수리만 완료해 재가동하는 게 안전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그동안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으나 신뢰받지 못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듯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을 줄이고 원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수원 측은 장기간 가동을 멈춘 원전의 재가동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안전한 가동과 운영에 토대를 두고 철저한 보수와 면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원전 사고는 단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교훈이다. 한수원 측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의 세세한 부분부터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 과정을 거쳐 원전을 가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빛내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없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소비 침체의 피해는 오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건물주들이 한시적이지만 월세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겠는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산업별 대출금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속한 지난해 서비스업 대출금은 18조5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 증가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음식·숙박업 대출 증가율은 5.4%로 전체 서비스업 대출금 증가 폭보다 컸다. 대출금 증가 폭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영세 자

영업자들이 빛을 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 내 서비스업 대출금은 제조업 대출금보다 4.4배나 많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한줄기 희망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추경이자 사스나 메르스 때 편성한 추경보다 규모가 크다. '코로나 추경'의 70% 가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잠재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은 나라 빛을 내 경기를 살리려 노력한 여섯 장을 놓고 있다. 지금은 '총선용' 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기보다 경기를 살려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無等鼓

"내 몸에는 다저스의 파란 피가 흐른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20년간 감독을 맡았던 토미 라소다의 명언이다. '영원한 다저스 맨'인 라소다 감독은 박찬호의 양아버지를 자처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하다. 그가 지른처럼 야구에 대해 늘 하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동업자가 둘 있다. 신과 미디어다. 신은 날씨 때문이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면 뭐 하나. 비 오고 쌀쌀하면 관중이 없는데, 미디어는 팬과 소통하는 통로다. 팬 없는 야구는 프로 스포츠가 아니다."

야구장의 봄날

평생을 야구와 함께 살 아 온 라소다 감독은 선수의 존재 이유를 팬들이 찾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중석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공여체제로 징벌적 성격이 강한 무관중 경기를 이어 오다 결국 일정을 멈췄고,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프로축구 K리그도 개막을 미루고 있다. 도쿄올림픽 회의론 확산에 4년간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도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비상등이 켜진 것은 최고 인기 스포츠

인 프로야구 역시 마찬가지다. KBO는 시범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규 시즌 개막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올림픽 브레이크까지 소화한다면 최악의 경우 합박눈을 맞으며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동안 폭우나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시즌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은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기간을 1주일 늘려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선수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스포츠가 활기를 찾아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라소다 감독은 이런 말도 했다.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야구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시즌이 시작하는 날일 것이다. 우수도 경칩도 지나 꽃은 피고 봄이 왔는데, 야구장에서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봄날은 언제쯤 오려나.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